요한복음55 왜 예수는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요10:22~42)

22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23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24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케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2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 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 하는 것이어늘

26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28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31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32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33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람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 이로라

34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36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다 하느냐

37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39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40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41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42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오늘 요한복음 10장 마지막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우리가 오늘까지 공부할 요한복음 10장까지이고 두 번째 부분이 11장부터 마지막장까지입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심이 여러 가지 이적들과 함께 제시가 되고 아울러 예수님이 속죄양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부분이고, 그 두 번째 부분은 실제적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종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 분을 배척하였는가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을 함으로 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너희들 중에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생명을 제시하고 진리를 선포하셔도 사람들이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를 하기에까지 이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목숨을 끊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야 말겠다.’는 당신의 의지를 십자가에서 실행하시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앞 뒤 부분은 마치 구약과 신약 전체가 담고 있는 개괄적 내용을 조금 작은 그림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 말라기에서 ‘누가 성전 문 좀 닫아다오’로 끝나면서 인간 쪽에서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폭로하는 것으로 마치지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직접 죄인들의 구원에 개입하시는, 예수님의 오심과 수난 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이 화려하게 펼쳐지는 것처럼 요한복음도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 1부의 결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1부의 결론이 어떻게 맺어져야 합니까? 구원에 있어서의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야겠지요? 그 내용을 머릿속에 잘 간직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40절과 41절을 보세요.

(요10:40-41)

40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41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요한복음 1부가 어떤 내용으로 결론지어지고 있습니까? 세례요한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빛이신 예수가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으로 시작하지요? 심지어 자기 백성들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설명하는 자가 이 땅에 보내어졌는데 그의 이름이 세례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1부의 마지막인 10장에서 다시 그 빛을 설명하던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요한의 이야기가 참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 드린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 기법 중에 아주 잘 쓰이는 문학 기법이 수미 일치법(inclusio)이라 했지요? 쉬운 말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앞뒤에 같은 빵을 대고 속을 잘 집어넣음으로 해서 그 전체 내용의 해석이 용이하게 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카이즘 구조라는 것도 잘 쓰입니다. 그 카이즘 구조라는 것은 교차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BCD라는 순서로 글을 진행해 나가다가 E라는 부분에 고갱이를 넣어놓고 다시D'C'B'A'로 돌아가는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잘 보시면 바로 그 수미일치법과 카이즘 구조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빛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A) 1부의 마지막 부분인 9장에서 소경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을 기록함으로 해서 1부의 서론에서 눈이 멀어 빛을 보지 못했던 죄인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는 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A') 그런데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그 방법은, 인간 측에서의 그 어떤 시도나 열심이 배제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0장 마지막에서 인간들의 모든 열심과 노력이 기각되고 어린양 예수의 죽음이 예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 주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장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갈 그 어린양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세례요한의 증거를 참이라는 말로 인정을 합니다.(41절)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그 분에게 이 세상의 떡을 달라고 조르고 있었고 그 세상의 떡을 약속해 주지 않는 예수를 죽이려 하는 것으로 1부를 끝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10:31,39)

31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39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렇지요? 이렇게 자신을 향해 돌을 들어 치려하는 자들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고 불가능하며 무력한 죄인들의 실존에 대해 1부의 결론인 오늘 본문이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 지 보세요

.

(요10:22-23)

22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23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보시다시피 이 요한복음 1부의 마지막은 수전절로 그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수전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유대인의 절기 중 ‘하누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수전절은 율법에서 요구된 절기가 아니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을 주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깨끗이 정화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12월의 여드레를 수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인간들의 행위를 대표하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인간 쪽에서의 열심이나 자격, 한 마디로 율법을 기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종교행위나 자신들의 열심을 내어놓으며 그것을 구원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인간들이 내어놓은 수전절이라는 절기에 인간 쪽에서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에 확인도장을 찍으시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한 성전을 자랑스럽게 기념하는 그 절기에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홀대를 당하고 있는 그 극명한 대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요2:19~21)

19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사십 륙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21 그러나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성전을 통하여 죄인들과 하나님의 거룩이 어떻게 만날 수 있고 함께 거할 수 있게 되는 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가시적이며 물질적인 성전이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을 한 단어로 줄이면 바로 ‘예수’입니다. 성전의 구조,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제물, 제사장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그 눈에 보이는 성전에 눈이 멀어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들이 만들고 청소해 놓은 가시적 성전 봉헌을 기념하는 날에 진짜 성전이신 예수가 쓸쓸하고 외로이 홀로 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을 절대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일 뿐 입니다. 그런데 참 성전이신 예수가 모형으로서의 성전이 봉헌되어진 그 날에 성전의 바깥으로 밀려나 있는 형국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그 축제의 절기인 수전절에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솔로몬 행각은 성전의 맨 끝 마당인 이방인의 뜰에 나 있는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뜰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을 지나야 비로소 유대인 남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나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성전이신 주님이 성전의 맨 끝으로 쫓겨나 계신 것입니다. 죄인들의 불가능함이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다시 보시면 요한이 수전절이라는 단어 옆에 굳이 겨울이라는 단어를 붙여놓은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 겨울은 모형으로서의 성전에 광분하는 수전절에 진짜 성전이신 예수를 죽이려 하는 죄인들의 실상을 한 마디로 설명하는 아주 기가 막힌 단어인 것입니다.

(렘8:20)

20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여 이 세상의 것을 얻어내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 여름과 추수할 때를 지나고 겨울에 남겨져 있습니다. 여름과 추수할 때는 구원 받을 때입니다. 그러나 겨울은 구원의 때가 이미 지나버린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구원을 얻지 못한 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자신들의 공로를 내어놓으며 구원의 근거로 제시하는 자들에게, 다른 말로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자라는 아담 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들을 살려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표적을 보여줘도 안 되고 차근차근 설명해 줘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들을 죽여 버리고 새롭게 창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이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당신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부의 결론인 10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반복적으로 예시되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10:15,17~18)

15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18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은 1부의 결론인 10장에서 계속 반복하여 당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 측에서는 구원에 관한한 그 어떤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수전절이 등장하고 겨울이 등장하고 솔로몬의 행각이 그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수전절이라는 단어는 이곳에 딱 한 번 쓰였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다른 공관 복음서나 서신 서에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는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통하여 교회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이 시간적 순서에 의해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 아시지요?

그런데 그 ‘수전절, 엥카이니아’라는 단어는 동사로는 두어 번 쓰인 적이 있습니다. 둘 다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먼저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9:18)

18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여기서 ‘세우다’라고 번역이 된 ‘엥케카이니스타이’가 바로 ‘봉헌하다, 낙성식을 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수전절이라고 번역이 된 ‘엥카이니아’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첫 언약은 피로 봉헌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두 번째로 그 단어가 쓰인 곳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10:19~20)

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20절의 ‘열어 놓으신’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역시 ‘엥케카이니스타이’입니다. 직역을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인 휘장을 꿰뚫어 우리에게 살길을 봉헌해 주셨다’입니다. 그러니까 ‘엥케카이니스타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관계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 봉헌 절에 참 성전이신 당신 자신의 피로 드려지는, 참 성전 봉헌식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죽이려 달려드는 원수들을 위해서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린양으로 죽으셔야 하는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다는 것은 36절과 40절을 보더라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요10:36,40)

36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다 하느냐

40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여기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무리로부터 분리가 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6절의 ‘거룩하게 하다’ ‘하기아조’는 ‘성별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고 40절에도 주님이 요단강 저편으로 유대인들과 잠시 분리가 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요한복음 1장의 어린양이 드디어 제물로 바쳐지게 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독 요한복음만이 예수님을 어린양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것은 요한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전 제물의 원형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 일부러 택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 어린양이 죽기 전에 며칠간 무리로부터 분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 나오지요? 어린양은 유월절의 언어입니다. 구약에서 최초로 유월절에 대한 명령이 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12:3-6)

3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양을 취하되

4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5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 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 이 달 십 사 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어린양이 그달 14일에 잡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은 그 달 열흘에 취해져서 한동안 다른 양들과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 지금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내기 위해 유월절에 죽게 되는 유월절 어린양의 모습을 예수의 삶 속에서 그대로 뽑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월절 어린양으로 죄인들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죽으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당신을 잡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양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양들을 당신의 손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천명하십니다. 그 말은 ‘나는 애초에 너희들의 됨됨이나 자격 같은 것을 보고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그 양들의 됨됨이나 성실함의 여부에 따라 중도에 탈락하거나 실패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요10:28-30)

28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돌려 때려죽이려 했습니다.

(요10:31-39)

31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32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33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람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 이로라

34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36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다 하느냐

37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39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여기에도 아주 웅숭깊은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돌로 치려는 자들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당신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왜 나를 죽이려 하는가?’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하길 ‘네가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고 선한 일을 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너는 너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였다. 너는 참람죄를 지은 것이고 율법은 참람죄를 지은 자를 돌로 쳐 죽이라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죽이려 하는 것이다’하였습니다. 그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은 시편 8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그 율법을 가르쳤던 유대 방백들의 실패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밝히십니다. 그 34절 이하의 말씀은 해석의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34절과 35절을 보시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했다는 말이 나오지요? 게다가 주님은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하고 쐐기를 박으시면서 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신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신이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 순간 우리는 모두 신이 된다는 말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우리는 신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되지만 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구절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구절이 인용이 된 시편 82편으로 가보지요.

(시82:1~8)

1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2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셀라)

3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4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 지니라 하시는도다

5 저희는 무지 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6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7 너희는 범인 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 같이 엎더지리로다

8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분의 백성들에게 법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의 대리인으로서 행하도록 위임하신 유대의 방백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했고, 그들이 율법에 동의하여 내린 선고는 하나님의 선고가 되었고, 그들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으며, 그들에게 반역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신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일을 위임받아 하는 이들이라는 의미에서 ‘신’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뇌물을 받고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밥 먹듯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공의를 행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시편 82편을 들어서 당신 자신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임받아 철저하고 완벽하게 행하신 ‘참 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당신께서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가르치고, 훈계하고, 권고하고, 징계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성되는 일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일을 하러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율법과 행위를 내 놓으면서 주님의 하실 일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분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리석은 바리새인들 같으니라구’하고 그들을 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투영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행위와 나의 자격, 그리고 나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던져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오직 주께만 있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 나의 자격 등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만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거저 부어진 것을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에서 우리 인간들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이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것이고 11장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실행이 파노라마처럼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납작 엎드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여전히 이렇게 불가능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은혜의 복음 속으로 풍덩 빠져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손에 달려 있는 것이기에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절망과 여러분의 어리석음까지도 여러분의 구원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선한 행위나 도덕적 윤리적 선한 삶으로도 여러분의 구원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 하는 것이로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 말씀은 ‘너희가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지만 성경은 너희들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는 책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에 대해 증거 하는 것이니 나를 믿고 거저 주는 은혜 속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막 살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애를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는, 율법을 모두 지켰다고 하는 부자 청년에게 그가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따라 오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구원은 우리 측의 율법지킴이나 우리의 업적이나 재산의 정도나 직업의 귀천 등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기에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빈손으로 좇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착한 일을 많이 한 후에 좇아오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설마 아무 것도 안 했는데 구원을 주시겠는가?’하고 의심을 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아무것도 안 해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그게 유다입니다. 우리 성도는 베드로처럼 금방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고도 뻔뻔스럽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하고 번죽 좋게 주님을 붙드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왕 노릇을 하심으로 우리의 실체를 직시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인하게 하시며 우리 속에 살고 계신 예수를 드러내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살 수 없을 뿐입니다.

제가 이 복음에 관한 아주 선명한 예를 성경에서 찾아 설명해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막9:42-50)

42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 움이 나으리라

43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 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47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 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48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 하느니라

49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50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 하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시면 성경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눈이 범죄 하게 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발이 범죄 하게 하거든 그 손발을 찍어 버리랍니다.

진짜 그렇게 하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러한 정신으로 삶을 살라는 것인가요?

여기에서 ‘찍어 버리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아포콥토’는 ‘자르다, 베어버리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제사용어임과 동시에 언약의 언어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언약을 맺다, 언약을 세우다’라고 할 때 ‘cut the covenant’ ‘언약을 자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창세기 15장의 쪼갠 고기 사건과 17장의 할례 언약을 생각하시면 아주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 제물을 쪼갤 때도 그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아포콥토’는 제사에서 제물을 자를 때 쓰는 단어임과 동시에 언약의 언어이기도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원형이 어떤 언약이라 했지요? 히브리서 9장 15절 이하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원형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피의 언약이라 했지요?

뿐만 아니라 소금이라는 단어 또한 제사용어이면서 언약의 언어입니다.

(레2:13)

13 네 모든 소제 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 지니라

(겔43:24)

24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마가가 ‘찍어버리라’라고 번역이 된 ‘아포콥토’라는 단어와 ‘소금을 두고 화목 하라’는 등의 소금 이라는 단어를 이곳에서 사용한 것은 참 제물이시며 온전한 제사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발을 베어버리고 눈을 다 뽑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의 백성이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베어 버리고 그에게 언약의 소금을 부어 참 제물로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지을 때 손발을 베거나 눈을 뽑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우리 대신에 손발을 찍히시고 눈을 뽑히신 예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때 비로소 우리에게서 작은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패역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불 성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분의 은혜를 더욱 더 깊이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